



A-Pack 2003 OSAKA

첨단 기술과 친환경 포장의 장

김국 / 은성정밀인쇄(주) 대표이사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인텍스 전시장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 A-Pack 2003 OSAKA는 총 257개사의 출품과 976개의 소부스로 구성, 각 사(社)별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친환경을 모토로 한 전시회답게 국제적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A-Pack 2003 OSAKA는 그동안 매번 보아온 전시였음에도 해가 갈수록 전시 목적의 규모가 줄어드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행사 진행이나 홍보물 제공 등 다양한 면에서도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 원인이 현재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을 짐작케하는 전시인 것 같아 포장인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이로 인해 전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A-Pack 2003 OSAKA는 종전과 같은 화려함과 신개발 위주의 첨단 제품은 그리 많지 않았고, 단지 규정된 공간에서 제품의 특징을 살린 배치가 주종을 이뤘다.

개인적으로는 神田産業(株)에서 출품된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E단보루시트에 직접 인쇄하는 플렉소 인쇄기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직업의식이 아닐까 생각됐다.

특히 디지털(아니룩스 선수 20~440lpi)에 수성 잉크로 다색도 인쇄기인 5색도 인쇄 코팅 유닛이 부착되어 있고 톱슨과 지함 접착기의 일괄 공정에 의한 포장 인쇄 시연에 감탄했다. 또한 분당 300매(枚)의 고속생산과 인쇄효과의 탁월성이 뛰어난 점을 보면서 미래 포장 인쇄의 흐름을 점칠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다.

일본 플렉소 기술협회 부회장인 香田씨는 “최소량 다품종 포장의 혁신이 미래 인쇄의 핵심이



▲ A-Pack 2003 OSAKA 출품물



▲ A-Pack 2003 OSAKA 전경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에서는 one line 시스템과 같은 설비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내에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도 점점 소량화되는 포장 인쇄물에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장기불황에 의한 수주량의 감소,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수성잉크의 사용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플렉소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 같다.

A-Pack 2003 OSAKA에 전시된 출력물은 대부분 합성수지 포장재와 포장제품 가공기계 등이었는데 다양하고 실용적인 디자인과 환경 친화적인 설정을 제품에 반영해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참관내내 제품에서 눈을 뗄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포장기술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쳐 포장 감량화와 공해 유발 포장재의 재활용을 추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포장산업의 역할로 확대하여 편리성, 쾌적성, 환경 친화성 등 많은 점에 포장인들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에 목표를 두고 포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Pack 2003 OSAKA를 통해 국내 외적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포장의 개념도 옛날의 기능 충족 외에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과제를 생각해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전시회를 돌아본 후에 느낌이지만 빠른 정보에 의한 선진국의 기술 연구에 보다 앞장서 나간다는 신념으로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포장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다. [ko]